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방 회 정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서 관찰되는 특징적 현상들을 비교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선행 발달연구들에서 제안된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 및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개관했다. 이를 토대로 분석된 한국 가정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요약하면 '엄부자모'이다. 한국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양육태도는 서구 모형의 권위적 태도와 권위주의적 태도의 혼합 형태에 가깝다. 특히 토착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적 현상은 효의 원리, 부자유친 성정, 부모자녀 동일체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가정이 상당부분 유교적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급변하는 포스트모던적 시대 상황 속에서도 부모자녀관계는 비교적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발달은 인간이 출생이후 상이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서 사회화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가족만큼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간관계 집단은 없을 것이다. 가정은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모자 관계를 통해 생애 최초로 관계성의 의미를 체득하게되는 장소이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정서적 기반은 가족내의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진다. 부모는 양육활동을 통해 자녀들의 활력을 유지시켜주고, 애착관계를 통해 동

일성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나아가 감수성과 지적 능력을 형성시켜나가게끔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 점에서 부모는 자녀의 최초의 교사일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적절한 부모역할을 통해 자녀의 발달과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나가는 적극적인 후원자인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부모들의 양육행동 및 그에 따른 효과들을 발달적 맥락에서 살펴본 다음에, 한국 사회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관찰되는 특징적 현상들을

문화심리학적 맥락에서 풀어나가고자 한다. 덧붙여 21세기로의 진입 시점에서 본 부모자녀 관계 양상에서의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양육행동과 발달

1. 양육행동의 차원 및 유형

부모의 양육행동은 형식상 차원론적 구성과 유형론적 구성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우선 차원론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acceptance-rejection),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의 두 차원을 중심으로 잔인, 방임, 익애, 무시의 4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했다. 이러한 Symonds 모형에는 건전한 양육태도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후 Schaefer(1958, 1959, 1965)가 수용-거부(acceptance-rejection), 심리적 자율-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autonomy-psychological control), 확고한 통제-느슨한 통제(firm control-lax control)의 세 차원을 제안하게 되었다. 우선 ‘수용-거부’ 차원에는 긍정적 측면으로 긍정적 평가, 공유, 애정표현, 감정적지지, 평등주의 태도가 포함되었으며, 부정적 측면으로는 무시, 무관심, 거부가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심리적 자율-심리적 통제’ 차원에는 침입(intrusiveness), 부모중심, 죄책감을 통한 통제, 소유, 보호, 수용, 잔소리, 부정적 평가, 거부, 엄격함과 처벌 등이 들어 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통제-느슨한 통제’ 차원에는 느슨한 훈육, 극단적인 자율성, 처벌과 엄격 요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Parker(1979)도 부모의 양육태도

를 과잉보호와 돌봄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양육태도가 유대의 결여나 약함, 애정없는 통제, 애정적 제한, 적절한 유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근래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모형들에는 수용/반응성(acceptance/responsiveness)과 요구성/통제(demandingness/control)의 두 차원을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한 차원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다(Erikson, 1963, 1982; Maccoby & Martin, 1983). 수용/반응성 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지와 애착의 크기를 의미한다.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꾸짖기도 하지만, 자녀를 자주 칭찬하고 격려하며 온정을 보인다. 반면에 덜 수용적인 부모들은 자녀를 즉각적으로 비난하고 비하하고 처벌하고 무시하며, 자녀들과 감정을 나누거나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 요구성/통제 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규칙 혹은 감독의 양을 나타낸다. 통제/요구적인 부모들은 이러한 규칙들을 자녀들이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녀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함으로써 자녀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반면에 비통제/요구하지 않는 부모들은 훨씬 덜 엄격하며 요구를 적게 하며 자녀들이 흥미나 관심을 추구하도록 하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이러한 모형에 근거해서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유형론적 구성으로는 Baldwin(1949), Baumrind(1967), Ferris 등(1980)을 들 수 있다. Baldwin(1949)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방임, 민주적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Ferris 등(1980)은 거부, 온정, 과잉보호, 편애의 세 요인으로 분류했다.

표 1. 양육행동의 두 가지 주요 차원(Maccoby & Martin, 1983)

		통제 방법	
		통제적/요구적	비통제적/비요구적
수용/반응방법	수용적/반응적	권위있는 부모	허용적인 부모
	무관심한/비반응적	권위주의적인 부모	무관심한 부모

Baumrind(1967)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관찰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권위있는 태도(authoritative attitude), 권위주의적 태도(authoritarian attitude), 허용적 태도(permissive attitude)의 세 가지 유형을 찾아냈다. 유형 I은 매우 확고하고, 사랑하고, 요구적이고, 이해하는 부모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들은 통제적이지만 융통성이 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요구하되, 합리적인 요구를 한다. 즉 부모들의 요구에 자녀들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 설명을 한다. 무엇보다도 권위적 부모들은 권위주의적인 부모들과는 달리 자녀들의 관점을 더 많이 수용하고 반응적인 자세를 취한다. 또한 자녀들이 가족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통제를 하되 자녀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유형 II은 확고하고, 처벌적이고, 애정없는 부모로 분류된다. 이들은 여러 가지 규칙을 자녀에게 적용하며 엄격한 순종을 기대하면서도 이러한 규칙들에 따라야 할 필요에 대해서 자녀에게 설명하는 경우는 적다. 권위주의적 부모들은 자녀의 응징을 받아 내기 위해 처벌이나 완력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의 갈등적인 관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요구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존중할 것을 강요한다. 유형 III은 수용적이지만 느슨한 자녀 양육 행동을 보이는 부모 유형들로, 비교적 자녀들에게 요구를 적게 하며 자녀들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한다. 자녀들의 활동을 일일이 감독하지 않으며 엄격한 행동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 통제가 결여되어있거나 중간 수준으로 애정적인 어머니와 양가적이거나 방임적인 아버지 유형이 이에 속한다. 이 세 가지 유형 외에 근래 가장 문제시되는 자녀양육 태도로 관심없는 양육행동(uninvolved parenting)이 지목되고 있다. 무관심한 부모 유형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매우 느슨하고 비요구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들 부모는 자녀들을 거부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스트레스나 문제들에 압도되어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accoby & Martin, 1983).

2. 양육행동에 따른 발달 특성

1) 양육행동과 심리사회적 발달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기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정서상태는 물론 성격, 자아개념, 가치관 및 지적 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심리사회적 발달 전반에 걸쳐 중대한 역할을 한다. 물론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는 상호적인 영향의 문제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자녀들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고집세고 충동적인 아이들은 부모로 하여금 강압적인 형태의 양육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결국에는 부모를 지쳐버리게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 애정이 적어지며 적대감을 갖고 무관심하게 될 수 있다(Lytton, 1990; Stice & Barrera, 1995).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부모의 적절한 애정과 합리적인 통제가 제공되는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다양한 문화권에 걸쳐 자녀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발달적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Glasgow et al., 1997; Luster & McAdoo, 1996; Steinberg et al., 1994; Lamborn et al., 1991; Pinto, Folkers, & Sines, 1991; Scott, Scott & McCabe, 1991).

(1) 권위있는 양육행동

권위있는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은 자신감이 있고 성취지향적이며 사회적 기술이 뛰어났다. 이들 자녀들은 유능하고 성숙하며 활동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남들과 협동적이다. 사교적이었으며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권위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인지적 능력에 있어서도 사고의 독창성을 보였으며 지적인 탐구를 선호하였다(Baumrind, 1977). 특히 권위있는 자녀양육 방식으로 성장한 자녀들은 그 장점이 청소년기에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약물남용이나 기타 다른 문제행동의 측면에서 보다 투철한 것으로 나타났다(Baumrind, 1991).

(2)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권위주의적인 부모들의 자녀들은 우울하고 비협조적이고 외관상 불행한듯 보인다. 남을 귀찮게 하거나 불친절했으며 목적없이 살아가거나 즐겁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인지 및 사회적 기술에서도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제한, 어머니의 과잉보호, 긴장된 부모자녀 관계는 낮은 비언어성이나 특히 낮은 공간적 능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ing, 1963; Heilbrun, Harrell, & Gillard, 1967; Hess & Shipman, 1965). 어머니의 과잉보호적이고 과잉통제적인 행동이나 부모의 심한 처벌 또한 자녀의 융통성있는 사고능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usse, 1969). 부모의 통제적인 태도는 자녀의 내적 동기나 창조성을 침해하기도 했다(Koestner et al, 1984).

(3) 허용적인 양육행동과 무관심한 양육행동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의존적이고, 인지적, 사회적 영역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종종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그러한 경향성은 특히 남아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 남아들은 보스 기질을 나타냈으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했으며, 자립성 및 성취수준에서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Baumrind, 1967). 무관심한 부모의 자녀들 또한 아동기 후반에 이르러서 매우 저조한 학업 수행을 나타내는 경향이 높았다(Eckenrode, Laird, & Doris, 1993). 그리고 종종 의미있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지 못하며, 적개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반항적인 청소년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2. 권위있는 양육행동의 효과

(1) 수용(애정)/반응성

부모의 애정/반응성은 자녀의 안정된 애착,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한다. 안정 애착은 초등학교 시기 동안의 지적인 능력 및 학업 수행능력을 길러주며(Pettit, Bates, & Dodge, 1977),

높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건강한 친사회적 관심 및 강한 양심 등의 발달과 상관이 높았다. 또한 부모의 민감성 차원은 자녀의 전반적인 인지능력의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민주적인 가정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지능계발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권위있는 부모유형은 자녀들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무관심하고 요구적인 권위주의적인 부모들과는 달리, 자녀들이 부모의 지시에 따르도록 동기화 시킬 수 있는 양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umrind, 1991).

(2) 합리적 통제

권위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통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한다.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주의깊게 설명해 주는 동시에 자녀들의 견해 또한 주의깊게 고려해 준다. 처음에는 권위있는 부모의 자녀들도 부모의 요구(통제)들에 대해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부모들의 입장이 단호할 뿐 아니라 자녀들의 비합리적인 요구들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요구에 따를 수 있는 시간(기회)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녀들이 처음의 자세를 바꾸게 된다. Baumrind(1983; 1993)가 제안한 부모-영향 가설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엄격하게 대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들이 보다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고, 문제행동은 적게 한다. 결국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의 요구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는 권위있는 부모의 요구는 자녀로 하여금 불평이나 반항적인 행동 대신에 헌신적인 순종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Kochanska, 1997b). 그러나 아동들이 너무 많은 지도를 받고 융통성이 없는 많은 제재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 자기신뢰를 형성하게 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문제를 결정하는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Grolnick & Ryan, 1989; Steinberg et al., 1994).

(3) 자율성 지원

Grolnick & Ryan(1989)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율성 지원(autonomy support), 참여(involvement), 구조의 제공(provision of structure)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부모의 자율성 지원(autonomy support)은 자녀의 자율적인 자기조절, 유능함, 적응, 학교성적, 성취와 정적으로 상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유능감과 적응 발달은 자녀를 이해하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다. 권위 있는 부모들은 융통성없는 기준을 제시하며 자녀를 지배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부모들과는 달리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하며, 부모들의 기대에 따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유와 자율을 허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기 효능감과 자기신뢰를 전달한다.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피드백은 자녀들의 자기신뢰감, 성취동기, 그리고 자율성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3. 양육행동과 발달장애

부모의 수용(애정)/반응성 수준이 낮아 부모와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자녀의 경우 불안 수준이 높고, 정서적으로 좌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Pettit, Bates, & Dodge, 1977). 이들은 신체상의 건강문제들이 더 많으며, 지능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저조하며, 또래들에게 인기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빈약한 동년배 관계, 임상적 우울 및 다른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의 일차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부족 그리고 자녀를 무가치하게 대하는 가족 상황이다(Ge et al., 1996; MacKinnon-Lewis et al., 1997). 부모로부터 자주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한 자녀의 경우 적응적인 성인으로 발달해나가기 어렵다(MacDonald, 1992).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양한 정신병리의 선행요인으로서 관련됨이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적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적인 태도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뿐 아니라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와도 유의미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Rey & Plapp, 1999). 애정없는 통제(affectionless control), 즉 애정이나 보살핌은 적으면서 과잉보호적인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우울증이나 불안 증에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Mackinnon et al, 1993; Parker, 1979). Jacobson 등(1975)에 의하더라도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정상인 집단에 비해 부모들이 더 학대적이고, 거부적이고, 과잉보호적인 반면에 관대하거나 애정적인 태도는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증 환자군에서도 부모 양측이 모두 감정적 따뜻함이 부족했고 특히 어머니가 거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Arrindell et al, 1983), 건강염려증 환자군에서 아버지의 과잉보호가 보고되었으며(Parker & Lipscombe, 1980), 정신신체질환인 천식아리와 부모의 과잉보호와의 관련성도 보고되었다(Parker & Lipscombe, 1979).

한편 일관성이 없으며 금지적 표현을 자주 하며 강압적인 통제 방법을 사용하는 권위주의적인 어머니의 자녀들은 유능성 및 협조성에서 뒤떨어지며, 성장함에 따라 문제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enberg & Litman, 1990; Kuczynski & Kochanska, 1995). 적대적이고 처벌적이고 수치감을 조장하고 거부적이거나 과잉통제적인 양육행동은 공격성의 발달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었다(Becker, 1964; Perris et al., 1983); Sears et al, 1953). 부모의 신체적 학대 및 방치 또한 자녀의 우울증 뿐 아니라 품행장애, 비행, 공격성에 결정적인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다(Cicchetti & Toth, 1995; Kaplan et al., 1998; Lewis, 1992). 자녀들은 분명 자신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구조화해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련의 규칙적인 제한을 필요로 한다.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지도(통제)가 결여되었을 경우 자녀들은 자기통제를 학습하지 못하고 매우 이기적이거나 충동적이 될 수 있으며 무질서하고 명확한 성취목표가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그들의 부모가 무관심하고 비양육적인 경우 그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Steinberg et al., 1994).

특히 무관심한 부모유형의 경우 자녀들이 3세 무렵에 이르면 벌써 공격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불끈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외현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또한 이들은 알콜 및 약물남용, 성적 비행, 무단결석, 그리고 매우 다양한 범죄적 행동 등과 같은 반사회적인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Lamborn et al., 1991; Kurd & Fine, 1994; Patterson et al., 1992; Weiss & Schwarz, 1996). 반면에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나 감독은 품행장애와 비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orehand & Miller, 1997; Wassernab et al., 1996).

II. 발달단계에서 본 부모자녀 관계

1.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가족주기 및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1) 영아기의 부모자녀관계

영아기는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생후 1년 동안 영아는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 주로 어머니와의 특별한 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Erikson에 의하면 이 시기가 양육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다. 양육자의 따뜻함

표 2. 가족주기와 발달

가족 주기	첫아이 연령	심리사회적 위기	사회화(개별화): 의존/분리	기본적 발달(목표)
신혼부부가족 (부부확립기)				새가족과 부부관계 형성 가족생활에 대한 장기적 기본계획세우기
자녀출산 및 영아기 가족	0~1	기본적신뢰/불신	생물학적 분리 구순 의존	건강한 출산과 양육
	1~3	자율성/수치&회의	구순 분리(이유) 애정 의존(강한 의존)	자녀교육방침의 조정
유아기 가족	3~6	주도성/죄의식 (외디프스 위기)	애정 분리(의존 감소) 권위 의존	
아동기 가족	6~12	근면성/열등감	훈련, 의무교육	자녀 취학 자녀의 학업지도
청년기 가족	12~20	(사춘기 위기) 정체감/역할혼미 (청년기 위기)	권위 분리(의존반대) 애정선택(우정 형성) 권위선택(정체감확립)	자녀의 진로지도 자녀의 심리적 자립지도
독립기 가족 (마지막 아이 독립까지)	20~40	친밀성/고립	배우자 선택 직업 선택 가족 분리	자녀의 배우자 선택원조 자녀의 경제적 자립배려
중년기 가족 (부부만 남은 가족)	40~65	생산성/침체		
노년기 가족	65~	자아통합/절망		

과 아기육구에 대한 민감성이야말로 영아기 부모 역할의 가장 핵심적 요인이다(Belsky, 1981).

영아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부모의 전적인 보호와 양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양육에서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안게 된다. 특히 첫아이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 변화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주기상으로 볼 때 부모기예로의 전환은 종종 위기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숙현(1988)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경우 부모기예로의 역할 전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위기로서가 아닌 부모가 되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전환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미국 부모들과 비교해보면 한국 부모들은 결혼 후 곧 태어나는 자녀를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구와는 다른 가족가치관, 자녀관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유아기의 부모자녀관계

유아기는 18개월부터 6세까지로, Erikson(1963)에 의하면 아이에게 본격적인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생후 1년이 지나면서부터 부모는 영아의 놀이친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러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Fagot & Kavanagh, 1993). 부모는 유아의 호기심, 자발성, 유능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사회적 규칙과 자기통제력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막 짝이 트기 시작하는 유아기의 자율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

이 시기에 자녀는 여러 면에서 부모 역할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유아가 말을 배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 또한 행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부모가 자녀행동에 제한을 가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특히 3~6세 시기는 외디프스 위기를 거쳐 초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이자,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는 발달적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처해 어머니들은 자녀의 훈육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유아기는 자아가 형성되고 자율성이 형성되는 발달 단계라는 점에서 점차 신체적인 방법보다 언어를 통한 자녀양육 방법이 중요해지게 된다. 유아기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태도는 애정-통제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원영, 1983). 즉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거부적이기보다는 애정적으로 수용하는 유형이지만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위협과 엄포로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종종 자녀의 성격 특성 가운데 특히 자조성과 사회성을 낮아지게 할 수 있다.

(3) 아동기의 부모자녀관계

이 시기는 자녀의 나이가 만 6세부터 12세까지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가정을 벗어나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신체적, 지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해나가게 되면서 아동들은 자신의 독특성과 잠재성을 깨닫게 된다. 또한 친구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아동기를 맞은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근면성을 발달시키도록 격려해야 하며 건전한 자아개념이 형성되도록 도와주고 가정 내외에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이재연 & 김경희, 1989). 즉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와 동시에 학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자녀의 학업성취가 부모의 주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는 학업성취가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 어머니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동기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궤잡조사연구소, 1983)

(4)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

청소년기는 사춘기로부터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

해나가는 시기까지로, 부모의 양육방법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이 자율성을 획득하여 자아정체감을 정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허용적인 자율성을 강조하게 된다. 청소년기 자율성 획득에는 두가지 측면이 포함되는데, 하나는 '정서적 자율성'으로 안전, 위안, 정서적 안정을 부모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행동적 자율성'이다(Steinberg, 1985, 1996).

청소년들은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고,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나아가 자신의 진로와 직업목표를 탐색해나가는 발달과정에서 부모보다는 또래 집단이나 매스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상당 정도의 감정적인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부터 부모와의 감정적인 거리가 증대하고 일상 생활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둘러싸고 부모자녀간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Holmeck & Hill, 1991; Paikoff & Brooks-Gunn, 1991; Steinberg, 1987; Steinberg, 1981).

일반적으로 부모-자녀들간에 일어나는 충돌이나 갈등은 주로 양편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부모는 갈등의 주체가 되는 문제를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자신들이 자녀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자기관리(self-governance) 욕구 속에서 부모의 통제를 잔소리 내지는 자신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Steinberg, 1996; Yau & Smetana, 1996; Smetana, 1995; Smetana & Asquith, 1994; Holmbeck & Hill, 1991). 그러나 청소년기 자녀들은 한편으로는 부모의 통제와 요구에 대해 저항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의견을 계속 존중하며 부모로부터의 승인을 절실하게 원한다(Galambos, 1992; Youniss & Smollar, 1985). 사실상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이 다 컸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데 비해 청소년기란 더 많은 자기통제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적응이 순조로운 청소년의 부모들의 경우 점차 자녀들에 대한 통

제를 줄여가기는 하지만 꼭 지켜야할 규칙을 어기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청소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통제를 조금씩 완화시켜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자녀 관계는 점차 부모가 주도하는 양상으로부터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보다 평등한 관계양상으로 변화해가게 된다(Feldman & Gehringer, 1988; Furman & Buhrmester, 1992). 여기에는 물론 문화권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중국계 및 아시아계의 미국인 부모들은 유럽계 미국인 부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오랫동안 부모가 권위를 행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Greenberger & Chen, 1996; Yau & Smetana, 1996).

한편 자율성을 획득하는 가장 적응적인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부모와 정서적인 연결을 차단하고 독립하는 것으로 보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를 매우 갈등적이고 비지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서 정서적인 자율을 얻게 되었을 때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uhrman & Holmbeck, 1995).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구성원들과의 긴밀한 애착관계를 지속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해가는 청소년들이 최상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보였다(Lamborn & Steinberg, 1993; Steinberg, 1996; Lown et al., 1993; Dishion et al., 1991; Lamborn et al., 1991; Youniss & Smollar, 1985). 이는 청소년기에 가족과 긴밀한 애착을 유지하는 일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자활하는 것만큼이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함을 의미한다(Grotevant & Cooper, 1986; Kobak et al., 1993; Lamborn & Steinberg, 1993).

부모-자녀간에 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성취하는 모습이 청소년기에 가장 바람직한 심리적 적응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족과의 상호의존적 맥락 속에서의 독립이 청소년기 자녀들을 위한 발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기에 부모와 거리가 생기고 사회적 지원의 중요한 근원인 부모와의 관계가 손상

될 경우 자녀들이 유능성을 발달시키고 자기 만족을 얻기는 어렵다(Lamborn & Steinberg, 1993; Ryan & Lynch, 1989). 부모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칙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통제하며 애정과 지원을 제공한다면 청소년기 자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을 획득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청소년기에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갈등과 힘의 경쟁은 거의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대부분의 자녀들과 부모들은 상호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서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재협의 과정을 통해 보다 더 균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면서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게 된다(Furman & Buhrmester, 1992). 그 결과 자율을 추구하는 청소년 자녀들은 보다 더 자율적이며 자신감있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 '친구같은'(friendlike) 애착을 발달시켜나가게 된다.

2.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 특성

(1) 부모의 역할

산업화를 거쳐 본격적인 후기산업시대를 맞으면서 부모 모두가 사회활동을 하는 기회가 빈번해짐에 따라 자녀양육을 대행하는 사회적 기관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도 여전히 부모역할은 중요하게 남아 있다. 한 가정의 부모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을 주로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을 맡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관점은 아버지는 사회와 가족을 연결하는 대표자로서 도구적(instrumental) 역할을, 어머니는 가족간의 애정과 감정문제를 담당하는 표현적(expressive)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Parsons & Bales, 1955).

부모의 역할 구분은 유교 문화권에서 더욱 확실하다. 가정내에서 볼 때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의 질서를 책임지게 되고, 어머니는 그러한 가부장 질서 속에서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역할의 차이는 Block(1973)이 제안한 개념화로 보면 아버지에게는 전형적인 남성성으로서의 행위주도성

(agency)을 어머니에게는 전형적인 여성성으로서의 친교성(communion)을 강조하게 된다. 성별에 따른 부모역할의 이분화는 "엄부자모"라는 표현 속에 확실히 드러난다. 즉 전통적으로 자녀에게 엄하게 가르치고 훈육하는 아버지와 온화하고 자애롭게 자녀를 감싸주고 보살피는 어머니가 바람직한 부모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헌신과 관대함 : 다수의 연구들에서 부모의 헌신과 관대함이 부모자녀 관계형식의 중요한 특질로 지적되고 있다(Azuma, 1986; Ho, 1986; Kim & Choi, 1994). 헌신은 어머니-자녀관계와 아버지-자녀관계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김의철, 미간행). 그러나 어머니가 자애로움을 통하여 자녀에게 자신의 헌신과 애정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순종과 존경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헌신을 표현한다. 산업화와 더불어 점차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헌신이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것이라면, 아버지에게로의 헌신은 자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흘러올라가는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엄격함과 권위 : 한국사회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한 전형적인 표상은 엄격함과 권위이다. 그러나 부모의 엄격함은 권위적인 통제로서가 아닌 자녀들의 학문적, 경제적,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Kim & Choi, 1994). 한국의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엄격함을 통제가 아닌 관심과 수용의 표현으로 받아드린다는 측면은 부모의 엄격함을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Rohner & Pettengill, 1985) 서구의 시각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헌신은 아버지-자녀의 관계에서 엄격함으로 완전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부모자녀 관계가 개인주의에 의해서 정의되는 서구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집단주의 내지는 가족주의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2) 성별과 부모역할

사회변화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점차 공유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부모간 역할상의 기본적인 차이가 여전히 있다. 이러한 의식은 남편은 바깥양반, 아내는 안사람이라는 표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아버지가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맡고 생활비 담당자로서의 바깥 역할을 수행한다면 어머니는 가사일과 자녀양육 등 안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① 아버지의 역할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가족부양자로서 밖에서 생계비를 생계비를 벌어들여 가족내에서는 판단의 최종 결정자로서 가족, 특히 자녀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되어져 왔다. 현대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가정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주역임을 맡는다는 점에서 가족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에 속한다. 아버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는 도구적·수단적 역할을 담당하고 가정의 경제적 담당자로서 생활비를 조달한다. 소득을 위해 대부분 밖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간접성, 부재성, 소극성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둘째, 아버지는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의 표본이 된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바로 자녀의 지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심리적, 내적 요구의 대상이 되며, 또한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해준다.

셋째, 아버지는 가정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애정이나 감정에 치우쳐 판단이 애매해질 경우, 아버지는 이성적으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넷째, 아버지는 자녀에게 실제적인 측면에서 용기를 북돋워주며 좋은 동료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아버지보다 민주적인 아버지인 경우에 잘 해낼 수 있다.

② 어머니의 역할

전통적으로 어머니는 가사일과 가족의 소비생활을

담당하고 가족 내에서 협조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애정과 정서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 점에서 어머니는 원칙과 규범에 의해서 움직이는 외부 세계를 대표하는 아버지와 함께 관계성과 보살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부 세계를 대표하게 된다. 어머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는 자녀의 생애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생후 최초로 접촉하는 어머니를 통해 신뢰감, 안정감, 애착을 형성되지 않을 경우 자녀는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수행해나가기 어렵게 된다.

둘째, 어머니는 자녀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긴 기간동안의 사회화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상당기간 자녀들은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거의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감(oneness) 상태로 지낸다는 점에서도 어머니의 행동 전반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표본이 된다. 어머니는 자녀의 기본적인 사회화와 문화화를 돕는 최초의 교사이다.

셋째, 어머니는 가족관계에서 주로 정서적·표현적 역할을 담당한다. 어머니 본능적인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와 강한 감정적 교류를 갖는다. 어머니의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야말로 자녀의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키며 자녀가 안정감 속에 자신의 정서를 개방하는 방법을 습득케 해준다.

넷째, 어머니는 중재자로서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사이에서, 사회와 가정과의 사이에서 가교의 역할을 담당한다. 어머니는 조정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긴밀하게 연결시켜 준다. 특히 아들의 경우 사춘기를 맞아 외디프스 갈등의 재등장으로 아버지와 대화의 줄어들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 저항을 보이기 쉽다. 이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자녀의 편을 들기도 하지만(Befu, 1986), 그보다는 아들의 입장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아버지의 의견을 아들에게 전달하면서 부자간의 감정적 대화의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3) 성별과 부모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 '권력 구조'라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애정 구조'이다. 가족관계에서 자녀들은 가장인 아버지로부터는 사회적인 안정을 얻으며, 어머니로부터는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 이러한 삼각구조가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해나감으로써 부모자녀 관계는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성별에 따라 특징적인 관계 양상을 나타낸다.

① 아버지-자녀 관계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가족관계는 부부중심이기 보다는 자녀중심으로 특징지어진다.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인 동시에 가장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진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들을 다스리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아버지-자녀간의 상호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자녀들은 부권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준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드리게 되고,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여기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효'의 도리이다. 그러나 생애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으로서 프로이트가 제안한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의 구조에서 보면 '효'란 자칫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완전한 예속성을 요구하는 윤리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일생 동안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감을 강요할 수 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자녀관계 가운데서 특히 아버지-아들관계를 강조한다. 부자관계란 가족 내에서 어떤 관계보다도 상위에 서는 것으로, 혈연이라는 천륜과 보은이라는 인륜에 기초를 둔 효도를 통하여 굳건해지게 된다. 아들의 경우 자녀로서 부권에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가정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상징적으로 부자관계는 가족 구조상 최고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부권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아버지가 여전히 가족의 가장이라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zuma(1986)가 지적하였듯이 대다수의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는 주변적인

인물이 되고 있다. 아버지는 형식적인 가장으로 존경받지만, 이러한 존경은 상징적일 뿐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가족에게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비례해서 가문을 계승하기 위한 아들의 기대와 의무집중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가부장제하에서 아버지-딸의 관계는 아버지-아들의 관계만큼 특별하지 못하다. 딸에게는 아들처럼 집을 계승할 후계자와 가장이라는 구조적 권리와 의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부녀관계는 부자관계만큼 강한 결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순수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을 사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녀관계는 각별해진다. 즉 아버지는 딸의 양육을 통해 부모로서 새로운 자애(慈愛)의 경험을 하게 되며 아들과는 다른 특별한 애착관계로 묶여지게 된다.

② 어머니-자녀 관계

전통적으로 어머니는 희생적인 모성성으로 상징된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생활하며 가사와 자녀양육을 보살피는 책임을 맡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한다. Chodorow(1989)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유아적 의존 상태에서 어머니를 의존하면서 일차적으로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어머니와의 하나감(oneness)을 경험한다고 한다. 사실상 태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출생 이전의 시기부터 자신과 자녀(태아) 사이에 독특한 심리적, 생물학적 유대를 형성해나가는 셈이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상호의존적 사회화란 가정에서의 모자관계를 통해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Kim & Choi, 1994).

생애 초기에 형성된 모자 일체감은 어머니와 자녀간에 밀접한 내적 연결감을 형성시켜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녀를 분리시켜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종종 어머니들은 자녀를 확대된 자신으로 느끼기 쉽다. 한국의 어머니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종 개인적 정체성을 자신의 자아실현으로서보다는 전통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의해

서 정의내리곤 한다. 실제로 자녀의 성취를 곧 어머니 자신들의 성취 내지는 그 이상으로 기뻐하는 장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감이야말로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보람있게 느끼는 공통된 모성적 정서이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자녀에 대한 비이기적인 헌신을 모성성의 주된 특질로 받아들이고 있다(Azuma, 1986; Ho, 1986; Kim & Choi, 1994). 일본의 경우도 어머니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아이 곁에 있음으로써 아이에게 안전감을 주고, 자신과 아이와의 경계를 최소화하며, 아이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한다(Azuma, 1986). 이러한 문화적 맥락이 아시아 지역 부모들이 유아기의 자녀교육에 있어서 그다지 혼란지향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는 근원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아시아권 어머니들이 자녀훈련에 관한 이유는 자녀의 미숙함에 대한 배려이자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이기도 하다. 이렇듯 유교문화권의 어머니-자녀 관계 구조는 아버지-자녀간의 권위 구조와는 대조적으로 생애 초기부터 깊은 애정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을 갖게 된다. 더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깨닫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강화되어 동일체감에 가까운 어머니-자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가부장제도하에서 공식적으로는 부자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모자관계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아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집안에서의 발언권도 더 강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모자관계 특성상 어머니는 아들과 애정적으로 결속될 뿐 아니라 아들에 의해 자신의 지위가 상승되는만큼 아들에게서는 기대가 크며 의지하는 마음또한 깊다. 사실상 대부분의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낳아 입신양명시키는 것을 모성으로서의 의무이자 지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한편 전통적으로 모녀관계는 종종 모자관계에 비

해 소홀히 대접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란 전통사회에서조차 아들과의 관계보다 공식적으로는 덜 가깝지만 실제적으로는 덜 계산적이고 더 내심적이어왔다. Chodorow(1989)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는 특유한 '이중적 동일시'가 포함된다고 한다. 즉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아이의 외할머니)를 동일시하는 동시에 자기 아이를 동일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경우는 자신과는 다른 남성성을 강조하면서 어머니와의 분리를 강조한다. 반면에 딸일 경우는 어머니는 자신과 딸을 동일시하면서 딸을 자신과 분리된 개인으로 지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모자관계에서와는 달리 모녀간에는 일차적 동일시, 즉 개인적 동일시와 유아적 의존성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또한 실생활에서도 어머니와 딸은 여자로서의 생활영역이 같으며 역할관심이 유사할 뿐 아니라 가부장제도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처해 있으므로 서로를 동정하면서 가족구성원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III. 문화맥락에서 본 부모자녀 관계

1. 한국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

(1) 가장권과 '효'

Hofstede(1991)가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집단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지닌 사회로, 집단의 원초적 단위가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가족 구조 내에서 '가장권'은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다. 조선시대 이래 가장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존재로서, 그 권위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어왔다.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권,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재산권, 가족원의 생활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가독권(家督權)을 갖는다(이 광규, 1975). 가장권이란 하나의 조직자로서의 특성을 갖고, '장유유서'와 '효'의 가족윤리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내의 제반 생활질서를 조직해나간다. 즉 가

장권은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외적인 기능으로서는 대표권을 갖고, 대내적인 기능으로서는 제사주관, 가산관리, 가족부양, 자녀교육 등을 포함하는 가사전체에 해당되는 막강한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유교 문화권에서 가장권은 일반적으로 부계의 혈연적 원리에 입각해서 자연스런 계승이 이루어졌으며, 가장권의 계승이란 곧 가(家)의 계승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가부장권은 한 가문의 종손 내지는 장남에게로 계승되어 자손대대로 이어지면서 세대를 거쳐 연속되어진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가족관계, 특히 부자관계는 사회의 일반적 인간관계 윤리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강하게 내포하게 된다. 삼강오륜이 생활화되어 부모, 그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자녀들은 부모를 효와 순종의 행위로 섬겨야 했다. 사실상 가부장 문화에서 가장권이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가정의 권위와 자녀의 효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으며, 부자의 수직관계가 중요한만큼 상대적으로 부부간의 수평관계는 억제되고 부부간의 애정표현은 억눌리게 되었다. 가족내에서도 피가 물보다 진했다.

‘효’의 기본은 부모자식간의 천륜의 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가화만사성’이 강조되면서, 가족내의 화합은 자식의 부모공경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자녀가 마음을 다바쳐 아버지를 사랑함이 효로 표현된다면, 그 진심(盡心)의 대상이 나라가 될때는 ‘충’(忠)으로 나타난다. 맹자도 인간이 행해야 할 도리인 인의(仁義)의 체득이 바로 아버지를 친애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인간행위의 당위적 규범인 인의예지의 핵심을 가족관계에서의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에 바탕한다고 본(조궁호, 1991) 점에서 결국 ‘효’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생활의 원리이자 그 영향력이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인 것이다.

가부장권은 효의 실천방식을 강화시키는 구조적 기반이다. 가정내에서 효의 도리로 자녀가 부모님 생시에 행하여야 할 것으로서, 공경, 봉양, 시봉, 순종이 있었으며, 효의 확대개념으로는 형제와 친척간의 화목,

보신(保身), 입신행도(立身行道)의 효가 포함되었다.(이길표 & 주영애, 1995) 최 재석(1964)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효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과 사후의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의 효도는 부모에 대한 공순(恭順)의 도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식은 마음속으로부터 부모를 존경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평소의 태도와 행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때 부모에의 존경심이 순종 행위로 표현된다. 효자는 그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결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상황하에서건 부모의 뜻이 자식의 뜻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시중을 드는 일이다. 자식은 항상 부모 곁에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부모를 섬길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다. 의식주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효자인 부모를 심려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에게 걱정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부모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자녀에게 부모가 미처 성취하지 못한 가치있는 일을 계승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도는 사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즉 효도의 영역은 자식으로서의 봉사와 제사를 통한 부모의 기억 등을 넘어서까지 이어지게 된다. 부모님 사후에 지속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효의 내용에는 상과 제례가 포함된다.

사실상 유교문화에서는 인·의·예·지·신 다섯가지 덕목 중에서 ‘인’(仁)을 최고의 원리로 여겼으며,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질서의 원리 등에 대해서는 ‘인’을 적용하여 해석, 실행하고자 했다. 여기서 ‘인’의 실행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랑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생활원리는 자연스럽게 ‘효’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경우 부자관계는 효(孝)와 더불어 자(慈)라는 전통적 규범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고 있다. 최상진(2000)이 지적하고 있듯이 부자유친 성정적인 부자관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형태와는 달리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애의식을 바탕으로한 심정적 상호작용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즉 혈육지정, 보은, 인간의 도리 등을 대표하는 속성으로 한 부자지간 유친관계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평등윤리 인간관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박명석, 1993).

‘효도는 백행의 근원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에 대한 효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도리인 동시에 다른 모든 인간도리보다 우위에서 도리이다. 그러나 자칫 ‘부모는 부모답지 않더라도 자식은 자식답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방향적인 논리가 강조될 때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상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이며 비대칭적인 부모자녀 관계란 주종 관계와 다를바 없다. 현실적으로도 하해와 같은 부모의 은혜에 대한 자녀의 끝없는 효의 부담은 종종 자녀들로 하여금 내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에 집중케함으로써 보다 넓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나 공동체 정신은 약화될 수 있다. 전통사회의 ‘가부장권’과 ‘효’의 원리를 서구의 관점에서 단순, 비하시킬 수는 없겠으나 부자유친 정서가 종종 효라는 형식을 빌미로 가족이기주의로서의 역기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조차도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만이 강조되었던 것은 아니다. 공자도 “부모도 신이 아닌 이상 범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가만히 간해야 한다”고 한바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전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가부장권’과 ‘효’라는 관점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도 효의 도리는 이상적인 규범적 지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실생활에서 이들 지침이 일반인들에게서 그대로 실천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부자유친 성정과 측은지정

최상진(2000)에 의하면 부자유친 성정(parent-child attachment)은 한국 부모자녀관계의 심리적 특성을 가장 적절히 수렴하는 개념으로, 측은지심에 의한 부모자녀간의 강한 동일체감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로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늘상 고마움감과 함께 연민, 죄스러움 등과 같은 측은지정을 느끼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자식에게 유사한 측은지정을 가지고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구 관점에서 보면 이는 특이한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의 원천을 부모로부터 발하는 힘으로 보고 있거나(Haley, 1976), 부모가 어느 정도 상벌을 행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나의 관점에서 힘의 일차적 원천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French와 Raven(1959)의 파워-기반모형의 분류로 보면, 파워에는 합법적인 힘, 강요적인 힘, 보상적 힘, 준거적 힘, 전문적인 힘, 정보적인 힘 또는 설득이 있다. 여기서 합법적인 힘이란 제도적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로 인해 갖게되는 힘이다. 보상적 힘이란 타인의 행동에 대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이고, 강요적 힘은 개인의 원하는 어떤 행동을 저지거나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강요할 수 있는 힘이다. 준거적 힘은 개인이 지닌 인품이나 매력으로 인해 그를 따르게 하는 개인적 힘이다. 상대에 대한 존경을 근거로 해서 준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준거적 힘은 파워의 요소보다는 인격성에 대한 존중과 동일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부모들의 자녀들을 응징시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파워와 관련된 기존의 서양모형으로는 설명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부모가 힘을 원천으로 자녀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과 인고의 삶 자체가 자식을 감정동일체화 시킴으로써 영향력을 구사한다. 즉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심정적 통제를 통해 자녀로하여금 부모를 심정적으로 연민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한 응종을 유발시키는 셈이다. 최상진(2000)이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종종 사건 발생시에 범인을 설득시키기 위해 부모, 특히 힘있는 어머니를 동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때 어머니는 대부분 찢어지게 아픈 “에미의 심정”이나 고생 많던 “에미의 삶”을 부각시킴으로써 부모에 대한 측은지정을 통해 자식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야말로 한

국의 어머니가 갖고있는 자녀에의 영향력은 ‘힘없음의 힘’이라는 특이한 초권력 형태인 것이다.

한국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물리적 힘이나 보상 등의 구체적 자원에 근거하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사랑, 감사, 미안함 등 상징적 차원에서 우러나온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한국 부모들의 경우 실질적인 파워 내지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동일시에 의해서보다는 부모자녀간의 감정공동체 정서, 특히 측은지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의 원천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서로 좋아하고 가깝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서로 연민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자녀가 부모의 견해를 따르는 정도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유친(사랑, 존경, 신뢰감)의 점수가 높은 것은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것과 별 관계가 없지만, 부모에 대하여 측은하게 느끼고 부담스럽게 느낄수록 부모의 견해를 존중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상진, 1991). 특히 측은지정의 정서는 부모가운데서도 어머니에 대해 더 강하게 유발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떠올리는 느낌은 고생, 불쌍함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머니’가 회상시키는 이러한 정서는 그 바탕에 자신을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무릅쓴 어머니의 희생을 목격하고 체감하면서 내면화된 내용들이다.

어린 아동들의 경우에도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즉각적인 욕구충족 행위를 지연시키고 바람직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영숙(1994)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에게 힘든 과제를 시킨 실험에서 과제의 지속시간은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한 조건에서 가장 긴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단순히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어머니가 하신 고생을 생각하게 하는 조건이 아동의 이기적 욕구를 지연시키고 어머니의 바람을 따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측은지정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측은지정의 정서가 혈육을 위해 고생을 무릅쓴 부모의 희생에 대한 자녀의 심정 상태일 뿐 아니라 부모 입장에도 적용되는 정서라는 점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종종 자신이 부모도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자녀 역시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녀들에게 짙은 연민감을 느낀다. 이 점에서 측은지정이란 부모자녀간에 쌍방향적인 심정적 교감에서 우러나오는 독특한 정서이다. 성공한 자녀를 맞는 순간에조차 한국의 부모들이 ‘잘해준 것도 없는데’라며 목부터 메어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정서맥락에서이다. 결국 감정공동체로서의 부모-자식간의 땀레야 땀 수 없는 끈끈한 정이야말로 한국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심정을 헤아려 부모의 바램과 요구에 응종케하는 강한 심정적 기반인 것이다.

부자유친의 한 양상으로서의 부모자녀간의 측은지정은 부모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에 그 뿌리를 두고는 있지만, 단순히 부모에 대한 부채의식이나 자녀에 대한 죄의식 때문은 아니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의 부모자녀간의 ‘정’의 공간은 교환관계나 힘의 논리를 넘어서서 비교환적, 초교환적 원리가 적용되는 초현실적 공간인 셈이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희생의 내용을 다른 부모들의 것과 비교하거나 일반적인 평균개념으로 가늠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신의 부모님의 처지나 능력수준 자체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비록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상대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을지라도 헌신의 소중함을 절대적으로 받아드리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헌신에 고통과 희생이 많이 따랐을수록 부모와의 동일체 정서가 강해지면서 부모를 자기자신처럼 느끼며 측은지심과 연민의 정이 커지게 마련이다.

실제 부자유친 성정 요인별 자식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영향력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인 요인이 부모 쪽에서는 혈육의식과 희생, 자녀 쪽에서는 측은감과 부담감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부모자식간의 호감이나 친애성과 관계되는 유친요인과 불신요인은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원천가운데 하나가 분명

부모의 자식에 대한 혈육의식에 뿌리를 둔 부모의 자식에 대한 희생과 이에 대한 자식의 심정적 공동체감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최상진, 2000).

발달과정으로 보면 혈육지정에 근거한 부모자녀간의 심정적 상호작용은 초기에는 부모로부터 시발되어진다. 즉 부모 편에서 자녀에 대해 유친감과 혈육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자녀들도 성장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측은감, 부담감, 나아가 보호의식 등을 내면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부자유친의 성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헌신이 자녀의 옹보적 심리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부모의 부자유친 성정이 자녀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측은지정에 호소하여 자녀를 옹중시킬 수 있다는 토착심리학적 관점은 점차 설명의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 근래 청소년들은 가족경제의 어려움을 아버지의 무능력으로 원망하거나 어머니의 고생조차 개인적 능력부족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한국적인 부모자녀 일체감 정서에 호소하여 부모자녀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점차 부모자녀 관계가 수평적인 동반관계를 지향하는 시대적 변화를 맞아 전통적으로 측은지정에 의해 형성되었던 부모자녀 심정적 동일체감은 현대적 의미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입신양명과 부모자녀 동체감

한국의 문화는 관계문화로(Lee, 1980), 개인은 독립된 존재라기보다 상호관계의 망 속에 연결되어 있다. 가족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를 이루며(Lee, 1990), 사회적 관계도 가족관계의 확대이다(Kim & Choi, 1994). 조선시대 이래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가족 속에서의 위치는 다른 모든 사회적 위치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지니며, 그러한 가치규범을 다른 사회적 삶에까지 연계시켜 나갔다. 이러한 가치관은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미분화된 구성원으로서 살게 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간관계를 가족 안에서 배운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이끌게 했다. 즉 가족적 전통이 규범의 내면화를 거쳐 개인의 가치관을 지배

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가치 전반에 대한 논리적 기초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관계들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는 '상호 의존적 자아'라는 독특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 개념은 서구의 '개인' 개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서구식 개인개념이 그 자체로 정체감을 갖춘 독립적인 의미를 지녔다면, 한국에서의 개인은 그에게 부과된 역할과 사회적 지위, 그가 속한 집단과의 관계가 포함됨으로써 비로서 정체감이 확립된다. 이 점에서 한국인은 개체로서의 개인 이전에 집단의 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의미가 부각된다. 이러한 의식이 바로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도 나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모이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배우자도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우리 남편, 우리 안사람으로 명명하게 한다.

한국인의 '나'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가족' 속에서 보존되고 계승되는 부분적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이 지향하는 입신양명도 결국 효나 충과 같은 직분을 통해 '우리'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성취의 의미를 찾게 된다. 즉 개인과 집단의 동일시는 한국인의 독특한 관계적 자아개념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동일시가 일어나는 집단가운데 개인에게 가장 원초적으로 의미있는 장(場)이 바로 가족이며, 가장 긴밀한 관계로서 부모자녀간의 동일체감이 형성된다. 즉 삶의 기본원리로서의 '가족주의'가 강조되는 전통에서 부모는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로서의 중요성이 한층 증폭되면서 부모자녀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으로 묶여지게 된다. 서구 문화가 자식의 부모에 대한 호감이나 존경의 극치를 동일시로 보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동일시보다 동일체(oneness)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최상진, 2000). 즉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는 부모자식간은 갈라놓을 수 없다는 운명적인 혈연지정과 더불어 동일체 의식 깃들여 있다. 따라서 부모는 보살핌과 헌신을 제공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개인의 삶의 목표까지를 함께 하며 동일체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타자'인 동시에 타자가 아닌 것이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가족주의와 부모자녀 동체감이 강조되는 근저에는 개인을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는 유교의 인간관이 깔려 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개인으로의 인간보다 관계 속에서의 인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입신양명’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기를 성취하는데 입신(立身)만하면 소용이 없다. 반드시 입신을 통해 양명(揚名)해야 하는 것이다(최봉영, 1994). 다시 말해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속해있는 공동체와의 합일을 통해 나와 내가 속해있는 집단을 함께 성취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엄격한 의미의 독립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 ‘타인과 더불어’로서, 내가 속해있는 집단과의 접합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만 나의 ‘나됨’이 갖추어지게 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한국의 부모들의 경우 성취지향성이 다른 어떤 부모양육 태도 변인들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데(박영신과 김의철, 1998), 이는 한국사회 특유의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받아드리는 한국의 부모들의 심리특성에서 보면 자녀에 성취에 대한 부모의 지극한 관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느끼는 심리 특성은 서구의 개인주의 시각에서 보면 부모의 대리만족으로 폄하될 수도 있겠으나 토착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한국인 특유의 부모자녀 동체감의 자연스런 표출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인의 부모자녀 동체감 심리는 현실적으로 서구와는 대조적인 독특한 부모자녀 관계 지각 특성으로 나타난다. Robert와 Pettengill(1985)에 의하면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각상에 상당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부모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비신뢰적이고 거부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지각함에 반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함을 부모의 애정과 무관심하지 않음의 표현으로 받아드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 문화가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자녀의 자율적이고 자기 지시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로 여기는데 반해 한국에

서는 부모의 엄격함을 통제가 아닌 자녀의 학업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받아드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Kim(1985, 1992)에 의해서도 한국 피험자들의 경우 부모의 통제를 간섭이 아닌 애정이 있으며 무관심하지 않음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통제는 한국의 경우 초등학생 및 중, 고등학생의 성취동기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과 김의철, 1998). 즉 청소년 초기에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통제가 적대나 부모와의 갈등과 유사한 부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부모들의 높은 성취지향성과 부모의 통제에 대한 자녀들의 긍정적 지각 등에 대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자녀의 성취를 통한 지위상승 기대라는 한국 사회의 가치지향성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최재석(1994)에 의하더라도 한국인은 사회적 권력지향성이 상당히 강하며, 이는 사회적 위세에 대한 극도의 집착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부모의 자녀교육의 주요 목적의 하나가 자녀의 ‘입신출세’이며, 자녀로서의 효의 한 요소가 ‘금의환향’이며, ‘부귀영화’를 누리느냐가 행복의 잣대가 되는 것이 한국 가정의 현실이다. 가족주의에서보면 한국에서의 가족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그야말로 허물없는 관계를 맺으며 부모자녀 동체감을 통해 안정적인 정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이지만 종종 가족이기주의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극단적으로 보면 한국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시험지옥에 허덕이면서도 공부하라는 부모의 성화에 자녀가 저항하지 못하는 것도, 좋은 가문과 자녀혼사를 맺으려는 부모들의 치열한 노력도 부모자녀 동체감의 자연스런 정서표출 이전에 입신양명을 목표로 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가족이기주의가 그 바탕에 깔려있을 수 있다는 있다.

2. 사회문화적 변동과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1) 개별성과 부부중심의 가족

근대적 가족가치로서의 가족일체감에 대한 강조는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인보다는 가족에 대한 헌신을 우선시하게 해왔다. 가족일체감을 이루는데 가장 구속력이 있는 것은 가족들간에 느끼는 애착과 같은 정서적인 유대감이다. 핵가족에 있어서 가족을 묶어주는 정서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부모는 자녀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가족일체감은 종종 부모의 자율을 제한하기 쉬우며, 어떤 점에서는 부모의 욕구충족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부모의 자기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가족일체감의 가치가 강조될 경우 특히 어머니들이 개인적 야망을 성취하려는 것이 용인하지 않거나 이기적인 모성으로 비판되기 쉽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회로 이행되면서 모성성이나 가정성(domesticity)의 가치를 넘어서서 개별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가족내에 도입되어지게 된다. 개별성이란 가족구성원 각자가 가족 전체의 욕구보다는 그 개인의 자아성취와 자아완성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중요시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듯 가족가치의 중요성이 일체감에서 개별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내의 정서적인 유대도 변형되면서 그 중심이 자녀에서 부모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자녀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의 가족정서의 변화는 현대의 부모들이 과거의 부모들에 비해 자신들의 평안을 더욱 중요시하며 자녀들에 대한 희생은 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개별성 가치에로의 변화는 가족구성원의 욕구균형(need balance)에 있어서 자녀의 위치가 보다 불리하게 됨을 함축한다. 물론 현대의 가정에서 부모중심의 가족형태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중심의 가족정서를 그대로 유지하며 자녀양육에 헌신적이다. 이제 어떤 가족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인지 또 어떤 가치가 더 바람직할 것인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그리고 문화에 따라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역할의 탈분화와 자율성 확장

현대에 이르러 포스트모던적 관점이 확산되면서 가족내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생각도 점차 변화를 맞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재능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을 옹호하는 포스트모던적 입장은 성별 역할, 직업적 역할, 그리고 부모의 역할 등에서의 탈분화를 주장하게 된다. 근대성이 삶 속에서 역할 분담의 이분 논리를 공고히 해왔다면 포스트모던적 사조는 근대성의 신화를 해체하고 역할의 탈분화(de-differentiation)를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특히 가정내에서는 역할분담에 대한 전통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가정에서 이미 아버지들이 어머니와 함께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참여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역할에서의 탈분화 현상은 가족내에서 부부관계에서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 가정 일은 부모들만의 몫이 아니며, 자녀들도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를 맡기도 하고 일부는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한다.

현대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독립적이고 유능하고 성취지향적이며 혼자서도 충분히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역할에서의 탈분화 현상의 확산은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모들의 시간부족 내지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의 증가 등과 맞물리지만 그 근저에는 개별성으로의 가족가치 변화 및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깔려있다. 역할의 탈분화와 함께 특히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결과적으로 부모보다는 자녀의 지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자녀들이 가정내에서 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은 책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규정되는 새로운 관계로의 발전”을 맞은 셈이다(Weiss, 1979).

그러나 이러한 가족가치의 변화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현대의 부모들은 이제 부모의존적인 자녀관을 철회하고 자녀들에게 자립성과 자기의존(self-reliance)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제 아동도 ‘순진한’(innocent) 의존적 존재가 아닌 ‘유능한’(competent) 자율적 존재

이기 때문이다. Aries(1982)가 지적하였듯이 과거에 비해 어린이들이 성인의 권리를 더 많이 향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책임 또한 함께 떠맡게 된 셈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이 의존적 존재라는 인식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왔다. 그러한 아동관에서는 아동들에게 성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요구보다는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애정어린 수용과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 ‘유능한’ 아동이라는 변화된 관점이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새로운 자율성의 측면을 아동들에게서 발견하게 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요구들은 종종 지나치거나 부적절하여 아동들에게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유능한’ 아동에 대한 과도한 기대야말로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자칫 부모나 사회가 말아야 할 아동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을 소홀히 하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유사한 논리에서 이 시대는 청소년들을 미숙함(immaturity)의 존재가 아닌 명민함(sophistication)의 존재로 재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관 역시 부모나 사회로 하여금 전통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간주되어왔던 역할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유능한’ 아동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상당수 어른들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막을 제공하는 대신에 명민한 청소년들이 알아서 대처하고 스스로 보호막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명민한 청소년들의 책임을 물어 그들의 개인적 및 사회적 실수에 대한 관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시대 청소년들은 종종 비수용적이고 비판적인 성인들 틈에서 자기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발견해야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에 대한 변화된 관점의 적용은 가정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어서 부모들조차 청소년 자녀들의 삶을 심리적으로 더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게 만들고 있다. 동시에 ‘명민한’ 청소년관은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이 살아온 가치관에 따라 애정적 지원과 권위적 통제를 통해 가르

치고자 하는 전통적인 부모들에게도 당혹감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포스트모던 시대의 ‘명민한’ 청소년관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청소년 자녀들이 성인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주는데 소극적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의 지원이 없을 경우 상당수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기 특유의 성적 압력을 견디어내기 힘들 뿐 아니라 또래 집단 내지는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준비 또한 충분치 못한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비록 대다수 청소년들이 외면적으로는 무난히 성인기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역시 부모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그만큼 성숙한 발달수준에 이를 가능성 또한 감소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불규칙성과 상호적 권위

부모자녀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애정의 축이지만, 또다른 축으로 일련의 규칙과 관련된 통제 축이 있다. 자녀양육에서 권위적인 양육방식이 권위주의적이거나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방식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도 사려깊지만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부모의 태도에 기인되는바 크다.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도 일련의 기본적인 규칙에 의해 지배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규칙들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따르게 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올바른 사회화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내의 질서를 잡고 바람직한 가족문화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규칙을 설정하고 한계를 정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부모의 일방적인 권위에 기초해 왔다(Elkind, 1981, 1988). 사실상 가족 정서에는 일방적인 내용이 많다. 여성을 남성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부부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권위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가부장 제도하에서의 부권은 일방적 권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성애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방적이

다.

그러나 부권주의(pateranism)에 대한 부모들의 자신감 상실, 개인주의에 따른 개체성의 강조, 역할의 탈분화, 개인적 자율성의 확장 등의 결과로 포스트모던 사회로 오면서 점차 가족내에서의 부모자녀간의 권위구조가 크게 변형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라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규칙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가정과 직장을 병행해야하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부모들 자신부터 가족관계에서 고정된 규칙을 만들고 따르기가 점점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가족간의 상호작용에서도 그때 그때 스케줄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규칙을 정하고 타협해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구분은 최소화되며 가족내의 권위와 존경의 균형이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과거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했다면 이제는 부모자녀간에도 상호적 권위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즉 친구나 부부와 같이 동등한 관계에서 적용되던 방식으로서의 상호적 권위가 민주적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가족관계 특성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동시에 상하관계나 수직질서로서의 부모/자녀의 구분은 점차 최소화되고 있다.

민주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상호적 권위가 요구되지만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일방적인 권위가 요구되어지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만약 자녀를 어려서부터 부모자녀간의 상호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양육해 왔다면, 청소년기에 이르러 부모가 일방적인 권위를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사춘기에 이르면서 부모들은 종종 심리사회적 지원과 함께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해야할 필요성에 부딪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상호적 권위를 주장하는 자녀 앞에서 부모들은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 쉽다. 이는 성인의 적절한 통제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자녀들 편에서도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 발달 특성상으로 보더라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의 일방적인 권위도 도움이 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상호적인 권위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권위와 관련된 부모의 양육방식에서의 문제는 이러한 방향성이 반대로 적용되기 쉽다는데 있다.

맺는 말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동 속에서도 기본적인 부모의 양육행동들은 변함없는 자녀의 생존의 기둥으로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독특한 역할행동들이다. 부모는 자녀 출산과 동시에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거의 평생에 걸쳐 짊어지게 된다. 실제로 교육적 존재(animal educandum)인 인간에게서 최초의 교육이 적용되기 시작되는 곳이 바로 부모의 품안에서이다. 부모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깨닫고 자아실현과 성취에의 욕구를 해소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힘들어질 것이다. 부모야말로 적절한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상호존적인 관계를 떠나서 개인의 성숙한 발달을 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모든 국가나 사회에서 모든 부모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훌륭한 양육자, 능력있는 교육자이기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기본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부모의 애정적 보살핌과 권위적 통제가 중요하지만 점차 자녀들이 부모에의 의존성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자율성을 획득하게끔 훈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통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자녀들의 성취동기와는 상관이 높으나 대학생 자녀의 성취동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 김의철, 1998). 다수의 연구결과에 근거해볼 때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효과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짐

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 특성 및 발달에 따른 변화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모-자/녀간의 관계 특성은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각기 상이할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변화 양상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현대 사회가 남녀평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성별 해체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상당 부분 전통적인 성역할 이분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엄부자모’가 이상적인 부모상으로 통용되며,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고 딸은 출가외인이 될 사람이라는 기본 가정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실제로 남아들의 경우 아들 노릇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시기에는 여아들에 비해 아버지의 엄격한 양육태도를 적대적이고 통제적이며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에 이르면 오히려 딸들이 아들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영신 & 김의철, 1998). 이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기에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분명해지면서 딸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에 대한 지각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를 비교문화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이다(Robert & Pettengill, 1985). 일반적으로 미국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부모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비신뢰적이고 거부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지각하는데 반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함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무관심하지 않음의 표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의 엄격함을 통제가 아닌 자신의 학업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Choi, 1994).

넷째, 부모자녀 관계는 보편적인 원리로 포섭될 수

없는 어떤 문화권 특유의 독특한 관계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상진(2000)이 제안한 ‘부자유친’의 성장이나 ‘부모자녀 동체감’ 등은 바로 이러한 토착심리학적 접근방식으로 얻어진 개념화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유의 정서적 특성을 논할 때 ‘정’과 ‘한’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전통 사회의 서민들의 일상적 정서가 녹아든 ‘정’과 ‘한’의 문화는 한국인의 인생관 뿐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관계 방식에까지 깊이 자리잡아 알게 모르게 한국인의 행동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 또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자녀의 양육방식 속에 스며드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독특한 관계양상의 한 표출로 이해될 수 있다.

다섯째, 이상적 부모역할이나 표준적 부모행동에 대한 기준이나 요구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변화한다는 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전 업주부로서 자녀교육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어머니를 이상적인 어머니 역할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점차 자녀양육에만 관심을 갖는 어머니보다는 자신의 직업을 갖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다 바람직한 어머니 역할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에게도 전통적인 남성역할로서의 도구적 활동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표현적인 특성을 갖추고 자녀양육이나 가사일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양성적인 아버지 역할이 추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엄부자모’라는 부모상은 상징적인 부모상으로 거론되는 것일 뿐, 현실적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친구같은’,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부모역할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 문헌

- 김의철(미간행).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심리적, 문화적, 생태적 분석.
 김의철 · 박영신(1999a).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

- 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박명석(1993). 동과 서: 그 의식구조의 차이, 탐구당.
- 박영신 · 김의철(미간행).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 이 숙현(1988).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2집, 겨울호, 161-181.
-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 분석, 일지사.
- 이길표 · 주영애(1995).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신광출판사.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연 · 김경희(1989). 남녀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7, 103-115.
- 조공호(1991).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1): 인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59-81.
- 최봉영(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 II, 도서출판 느티나무.
- 최상진(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91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339-350.
- 최상진(1993a).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심포지움*, 5-21.
- 최상진(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3-237.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Aries, P.(1982). The sentimental revolution, *Wilson Quarterly*, 6, 4(Autumn 1982).
- Azuma, H.(1984). Psychology in a non-western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9, 145-155.
- Baldwin, A. L.(194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48-61.
- Baldwin, A. L.(194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48-61.
- Barber, B. K., Olson, J. E., & Shagle, S. C.(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75, 43-88.
- Belsky, J.(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Block, J.(1973). Conceptions of sex rol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rown, B. B., Mounts, N., Lamborn, S. D., & Steinberg, L.(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 467-482.
- Chodorow, N.(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ishion, T. J., Patterson, G. R., Stoolmiller, M., & Kinner, M. L.(1991). Family, school, and behavioral antecedents to early adolescent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72-180.
- Elkind, D.(1981/1988)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Reading, MA: Addison-Wesley
- Elkind, D.(1995). *Ties That Stress: The New Family Imbal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Y: Norton.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 Erikson, E. H.(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Y: Norton

- Fagot, B. I., & Kavanagh, K.(1993). Parenting during the second year: Effects of children's age, sex, and attachment classification. *Child Development*, 64, 258-271.
- Feldman, S. S., & Gehring, T. M.(1988). Changing perceptions of family cohesion and power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9, 1034-1045.
- French, J. R. P., & Raven, B. H.(1959). The basis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Ed.), *Studies in social powe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Fuhrman, T., & Holmbeck, G. N.(1995). A contextual-moderation analysis of emotional anatomy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793-811.
- Furman, W., & Buhrme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alambos, N. L.(1992). Parent-adolescent rel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 146-149.
- Greenberg, M., & Chen, C.(1996).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and depressed mood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 comparison of European and Asian American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07-716.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taking skills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 82-100.
- Haley, J.(1976). Development of a theory: A history of a research project. In C. E. Sluzki & D. C. Ransom(Eds.), *Double bind: The foundation for the communicational approach to the family*. NY: Grune & Stratton.
- Ho, D. Y. F.(1986). Chinese patterns of socialization: A critical review. In M. H. Bond(Eds.),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Holmbeck, G. N., & Hill, J. P.(1991). Conflictive engagement, positive affect, and menarche in families with seventh-grade girls. *Child Development*, 62, 1030-1048.
- Kobak, R. r., Cole, H. E., Ferenz-Gilles, R., Fleming, W. S., & Gamble, W.(1993).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amborn, S. D., & Steinberg, L.(1993). Emotional autonomy redux: Revising Ryan and Lynch. *Child Development*, 64, 483-499.
- Lee, D. S.(1980). Traditional norms in family and problems of modern family. In D. S. Lee(Ed.), *Traditional values and establishment of New Values*. Seou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Lee, S. W.(1990). Koreans social relationship and Cheong space. Paper presented at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Seoul, Korea.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 Genera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 Paikoff, R. L., & Brooks-Gunn, J.(1991). Do parent-child relationships change at puberty? *Psychological Bulletin*, 110, 47-66.
- Parker, G.(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35, 550-560.
- Parsons, T. & Bales, R. F.(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e: Free Press.
- Perris, C., Jacobsson, L., Lindstrom, H., Von Khorring, L., & Perris, H.(1980). Development of a anew inventory for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1, 265-274.
- Robert, R. P. & Pettengill, S. M.(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the Korea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yan, R. M., & Lynch, J. H.(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 340-356.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Psychology*, 226-235.
-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metana, J. G.(1995). Parenting styles and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299-316.
- Smetana, J. G., & Asquith, P.(1994).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ersonal autonomy. *Child Development*, 65, 1147-1162.
- Steinberg, L. D.(1981). Transformation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17, 6, 833-840.
- Steinberg, L. D.(1985). *Adolescence*. NY: Knopf.
- Steinberg, L. D.(1987).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 451-460.
- Steinberg, L. D.(1996). *Adolescence*(4th ed.). NY: McGraw-Hill.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Columbia University.
- Weiss, R.(1979). Growing up a little faster: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in a single child househo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 4.
- Yau, J., & Smetana, J. G.(1996). Adolescent-parent conflict among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Child Development*, 67, 1262-1275.
- Youniss, J., & Smollar, J.(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evelopmental explo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Korean society

Hee-jeong Bang

Division of Social Sciences,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1) to review the diverse suggestions about parenting behaviors based on the developmental approach over the past few years, (2) to explicate the characteristics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in Korean family through the cross-cultural perspectives, and (3) to discuss the observable changing patterns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in postmodern society.

According to the written records the characteristic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in Korean family was still summarized 'Om bu-Ja mo'. It means strict father, benevolent mother. Devotion to child is a very important element in both father and mother in Korean society. Korean mother shows her devotion to child through indulgence. In a father-child relationship, devotion is complemented with strictness. The general pattern of parenting in Korean family is similar with the mixed type of authoritative & authoritarian attitude.

Interestingly core concept sustaini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have not changed significantly, although social change has radically altered the social ecology in Korea in recent years. This paper concluded The traditional features and mechanisms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such as filial piety, parent-child attachment, parent-child oneness still remain strong and influence pervasively over the generations in Korean family.